

다산포럼

누가 ‘내부’의 진실을 전해 줄까?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영화평론가

지난 금요일, 남산을 백 분가량 걸었다. 추웠던 겨울날들이 지나가며 느껴지는 봄, 그 산뜻한 공기 마시는 재미에 걷노라니 ‘봄바’ 노래가 떠오른다. 봄기운 여파인지, 오랜만에 두 친구의 전화를 받은 기쁨도 작용했을 것이다.

“봄바 속에 떠난 사람/ 봄바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나로서는 봄맞이 의식처럼 홀로 흥얼대며 부르던 이 노래가 이번에는 다르게 다가온다. ‘내부자들 : 디 오리저널’(우민호 감독, 2015)에서 수차례 들었던 이 노래의 진영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한국 영화를 결산하노라면 수저계급론의 반작용이 강하게 다가온다. 한국 영화의 주력 액션영화 계보에도 수저계급론에 대한 분노가 작동하고 있다. 그런 징후를 강력하게 드러낸 ‘베터랑’(류승환 감독, 2015)을 보노라면 현실에서 벌어진 특권층의 범죄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이틀테면 항공기 땅콩 사건의 작태를 저절로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은 불공정한 현실을 정외로운 허구로 치벌하는 대리만족 효과를 주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관객의 폭발적 호응을 얻었던 ‘내부자들’이 감독관으로 새해맞이 극장에 걸리면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흥행 성적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끼’와 ‘미생’으로 잘 알려진 윤태호 작가가 2012년 ‘한겨레’에 연재했다 중단 한 웹툰을 원작으로 탄생한 이 영화의 매력은 팍팍 튀는 연기력 대결, 코믹한 명대사 등 여러 요소들의 결합에 있다. 예를 들어, 출세를 꿈꾸며 섬기던 언론 거물에게 배신당하자 복수혈전을 벌이는 강패 안상구(이병헌)의 입에서 나온 대사 “모히도 가서 풀디브나 마실까요?”는 이미

유머 인용구로 유행어가 돼 버렸다. 대한민국 정·재계 밀그림을 그리는 ‘조국일’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가 읊조리는,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집니다”는 매우 기분 나쁜 대사지만 의미심장하게 울린다.

실력보다 족보가 중시되는 특권층에 질린 의로운 우장훈 검사(조승우)와 배신당한 정치 강패의 복수심이 결합하여 짜나가는 범죄 스릴러 ‘내부자들’의 맛은 지금 돌아가는 대한민국 현실과 허구의 상관관계에서 나온다. 지난해 키워드로 선정될 정도로 퍼진 ‘헬조선’의 근거인 ‘수저계급론’은 이 영화에서 ‘족보론’으로 변형된다.

정계·재계·언론계가 결합한 콘크리트 같은 삼각 구도, 그런 남성 특권층이 누리는 성접대 관습, 거기에 동원되는 여성 연예인 인권 문제도 허구 이미지의 은닉된 밀그림처럼 하나둘 떠오른다. 이런 허구 영화지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과 정황들, 현실의 부조리를 한 걸씩 가 나가는 스릴러 특유의 재미를 전해 준다.

어떤 영화의 감독관이 개봉되는 경우

는, 극장 상영판에서 잘려 나갔지만 더 보고픈 관객의 기대와 더 보여 주고픈 감독의 욕망이 결합할 때 발생한다. 영화사에 남은 SF결작 ‘블레이드 러너’(리들리 스콧 감독)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1982년 ‘E.T.’(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와 같은 해, 같은 장르로 개봉한 이 작품은 흥행에서 ‘E.T.’에 참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아 관객층에게 ‘저주받은 결작’이란 지지를 얻게 되자, 10년이 지난 1992년 확장된 감독판으로 극장에 개봉되는 기록을 세웠다. 흥행 수치 중심의 영화산업 생태가 이렇듯 ‘저주받은 결작’으로서 감독관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내부자들 : 디 오리저널’ 감독관은 ‘홍미진진 흥행작’의 부활이란 점에서 다르다. 감독관이 내건 ‘대한민국을 강타한 권력가들의 진짜 이야기’라는 선전 문구는 속과 겉이 다른 정치공작 현실에 질린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이 허구 영화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한국형 범죄 스릴러의 활성화는 현실의 부정을 먹고 사는 아픈 거울로서 영화의 힘과 매력을 생각하게 한다.

社說

사상 최대 체불임금 설 전 지급 총력전 펴야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명절이 결코 즐겁지 않은 이들이 있다. 상여금을커녕 정당한 임금마저 제때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 수는 30만 명에 육박했고, 전체 금액은 1조3천억 원에 달했다. 체불임금 총액은 2011년 1조874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2천993억 원으로 4년 사이 19.5%나 증가했다.

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업체의 체불임금은 389억 원으로 전년 376억 원보다 3.7% 증가했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영세 사업장의 임금 체불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사업체 규모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을 보면 5인~29인 사업장 141억 원, 5인 미만 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234억 원으로 전체 체임의 60%가 넘는다. 저소득 근로자의 체임

이 상대적으로 많아 ‘빈익빈’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상습 체불과 재산 은닉 및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함께 엄중 사법조치 한다고 한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체불임금 근절을 외치는데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은 숨방망이 처벌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재산은닉·도주 등이 아니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임금 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만 봐도 고차 20여 명에 불과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없앨 수 있도록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초광역 경제권 구축’ 영호남이 함께 나선다

수도권 집중에 충청권의 신장세로 경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호남 8개 광역단체가 주력 산업과 인프라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낙후된 영호남의 산업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국토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대구에서 열린 제12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광주·전남·북,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지역별 주력 산업을 발굴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남부권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집중 논의됐다. 양 지역이 유관 산업 협력 확대·인프라 구축·관광자원 개발·인재 육성 등 제반 사항에 서로 협력함으로써 동반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들 시도는 남해안(보성~목포)철도 조기 건설,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남부내륙철도(광주~대구) 조기 착수 추진 등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근 광주·전남의 땅갈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

장 더딘 것은 철도·도로 같은 국가기반 시설 부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계획이 가시화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력회의는 또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지자체 지원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법 제정 등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밖에 광주시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홍보를, 전남도는 2016 세계 친환경디자인박람회와 2016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협조를 논의했다. 양 지역이 유관 산업 협력 확대·인프라 구축·관광자원 개발·인재 육성 등 제반 사항에 서로 협력함으로써 동반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들 시도는 남해안(보성~목포)철도 조기 건설,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남부내륙철도(광주~대구) 조기 착수 추진 등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근 광주·전남의 땅갈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

NGO 칼럼

스마트폰 중독, 학업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황수주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장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살피고,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자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스마트폰을 쥐고 가야 하고, 심지어는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도 만지작거립니다. 스마트폰 의존과 중독은 나이와 무관하게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일상생활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북구지역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1455명을 대상으로 ‘2015 광주시 북구 청소년생활실태조

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스마트폰을 하루에 3~4시간 사용하는 청소년이 32.1%, 5시간 이상은 8.7%로 확인되는 등 청소년의 40.8%가 하루에 3~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의 수적이지만, 실제 지금과 같은 방학기간에는 그 수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57.5%가 하루에 3~4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메신저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관계를 중요시하는 특성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게임 경험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과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바라는 것을 묻는 질문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 학습량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마땅한 놀이나 시설 등이 없기 때문에 혼자 상상의 세계를 그릴 수 있는 디지털의 유익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등·하교 하면서, 학원에 가면서, 집에 가면서 뛰는 대로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놀이·문화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북구지역 청소년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북구는 광주시 전체 학교 중 30%가 넘는, 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시설은 북구청소년수련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자유롭게 문화활동과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문화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북구 청소년들은 장애 희망으로 교사, 의사·약사, 경찰·군인·소방관, 공무원·정치인·외교관, 연구원·과학자·개발자, 요리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선호했습니다. 주로 부모님들이 바라는 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안정된 직업군이었습니다. 모두가 공무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개인의 적성과 진로설계를 반영하지 못한 진학과 진로 선택으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고려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다

양한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 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마음껏 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가 5점 만점에 4.46점으로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서 다행스러웠습니다. 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닮고 싶다’고 응답을 많이 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85점, 친구관계는 4.16점, 학교 급식은 3.38로 학교급식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고, 추진 위원회 구성과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가 어린이·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우리 센터도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겠습니다.

기 고

그래도 흡수저에게 희망이 있다



박찬주
경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컴퓨터에 빛의 속도로 통신을 붙여준 게 인터넷 혁명이다. 지구 반대편 산골마을에서 한 마디 외침이 인터넷을 타고 날아오르면 73억 인구가 순식간에 반응한다. 헬조선, 지옥을 뜻하는 Hell과 조선의 합성어로 작년 한 해 청년세대를 주축으로 SNS에서 상당기간 검색순위 1위를 기록했던 키워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그 의미는 계속 진화했다.

‘세계의 문학’ 작년 겨울 호에 실린 글을 인용해보면 지옥과도 같은 한국을 지칭할 때는 ‘헬-조선’의 느낌으로 다가왔지만 점차 한국은 그야말로 지옥이라는 ‘헬=조선’으로 어느새 둔갑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제도, 세월호와 메르스 같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앞뒤가 짝짝 맞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포괄하는 단어가 헬조선이라고 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TV뉴스 자막에 나왔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진짜 그게 맞나 싶다. ‘한국 청소년 삶의 만족도 OECD 중 꼴찌, 등록금 부담률 OECD 최고수준, 한국 아동들 학업스트레스 세계 최고, 공교육비 민간 부담 OECD 3배’ 등 수없이 부정적인 내용들로 화면을 가득 메운다. 그 속에는 지금 한창 치킨 게임에 열을 올리는 ‘국회의원 경쟁력 OECD 꼴찌수준 연봉은 3위’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신조어들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대변한다. 취업난에 시달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린 ‘88만원 세대’로부터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3포 세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해야 하는 ‘5포 세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 세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어떤 것도 모두 다 포기해야 하는 ‘N포 세대’의 청년들에게 헬조선은 이제 수저계급론으로 이어졌다. 자기 재산을 파악하는 사이에 또 불어나 얼마인지도 모르는 부자들에서 태어난 금수저에 빚대 기밀 언덕도 없는 청년을 일컫는 ‘흡수저’라는 신조어가 맛스럽게 유행한다. 그래서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부터 소외받고 항상 노력이 아닌 ‘노오~력’이 부족해서라고 조롱받는 흡수저들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원죄인가?

또, 누리과정은 누구나 함께 누리야 할 보편적 복지인데도 흡수저에게만 특별히 배풀어 주는 은총(?)이기에 목매어 기다려야 하는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수한 교수가 ‘신음서제도’가 유행하는 사회에서 해탈을 누리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분노나 박탈감이 자조와 조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했던 말이 가까이 와 닿는다. 몇 해 전 큰 아들에게 사법시험에 도전해보라고 했더니 ‘요즘은 음서제가 더 위력을 발휘해서 합격한들 크게 기대할 것 없다’던 대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천에서 나오는 용’은 흡수저들에게는 영원히 다가갈 수 없는 신기루일까? 얼마 전 중국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유학시키는 학부모와 나뉘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모든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가정학습 과제를 부여해도 학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서 보내야 한다고 했다. 아이가 규칙을 어기거나 과제를 해결해 오지 않으면 학부모를 호출하여 강하게 책임을 묻지만 선생님의 권위를 절대 존중한다고 했다. 물론 사교육 시설도 없지만 학교와 선생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 없는 중국, 예일대학교 에이미 추어(중국계) 교수가 ‘타이거 마더’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인들은 아

이가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며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술과 인력은 습관과 자긍심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믿는 중국,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과 오버랩 되어 10년 후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교할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 가슴 답답함이 밀려온다.

신속을 해마다 집은 어둠 속에 묻히거는 허둥대지 말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방향 감각을 찾아야 한다. 절망이 한계에 이르러 희망이 다고요 있다는 징표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흡수저들에게 손에 잡힐 듯 한줄기 빛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일 것이다. 가장 확실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상황을 냉철하게 성찰해보고 가진 자들이 조용히 내뱉는 말처럼 노력이 아닌 ‘노오~력’만이 소외와 절망으로부터 탈출하는 해결책이다. 나는 며칠 전 우리지역 군수와 함께 폐교 직전에서 14대 1의 입학 경쟁률을 자랑하는 군산의 면단위 중학교와 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자체가 교육을 지원하면 패널리트를 주겠다는 이 정부의 현명한(?) 방침에도 군수의 교육 나들이에 힘겨워 부딪쳐주는 밤민들의 손바닥 소리에서 물러받을 것 없는 눈두렁 흡수저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할 뿐이다.

無 等 鼓

“광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어디나/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훤(苦海)에/ 너는 무엇을 찾으리 가느냐...”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인 윤심덕은 1926년 7월 일본에서 새 앨범을 취입한다. 이때 그녀는 계약된 26곡 외에 예정에 없이 루마니아 작곡가 이바노비치의 왈츠곡 ‘다뉴브강의 잔물결’ 멜로디에 직접 가사를 붙인 곡을 추가했다. 여동생 성덕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그녀는 녹음을 마친

“곡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어디나/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훤(苦海)에/ 너는 무엇을 찾으리 가느냐...”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인 윤심덕은 1926년 7월 일본에서 새 앨범을 취입한다. 이때 그녀는 계약된 26곡 외에 예정에 없이 루마니아 작곡가 이바노비치의 왈츠곡 ‘다뉴브강의 잔물결’ 멜로디에 직접 가사를 붙인 곡을 추가했다. 여동생 성덕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그녀는 녹음을 마친

레코드 회사의 청부를 맡은 연락선 선실 ‘보이’가 두 사람을 밀쳐 버렸다는 등 많은 의혹이 뒤따랐다. 당시 취입 개런티 3만 원은 같은 해 10월 히트한 영화 ‘아리랑’(감독 나운규) 10편을 만들기도 남을 정도의 거액이었다고 한다.

사후 발매된 ‘사의 찬미’ 음반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고은 시인은 연작시 ‘만인보’에서 이 노래에 대해 “반도의 남녀노소 모두가 들었다. 모두가 불렀다”고 묘사했다. 더

육이 ‘사의 찬미’ 인기는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유성기(죽음을)를 일반에게까지 널리 보급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난 27일 일본 야후 재팬 온라인 경매에서 윤심덕의 ‘사의 찬미’ 유성기 SP 초판(初盤)이 550만 엔(한화 5600만 원)에 낙찰됐다. 90여 년 전 일본에서 발매된 최초의 조선어 노래 음반이 역대 한국 가수 음반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원곡을 복각(復刻)한 그 노래를 음원 사이트에서 찾아 들어 보았다. 지글지글의 잡음 속에서 들리는 애잔한 노래는 시대를 앞서간 한 젊은 여성 음악가의 고뇌와 비운의 삶을 반추하게 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사(死)의 찬미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1(일간) ·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7-0195)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우편물 발송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